

“돌아오면 환영” 텍사스가 커쇼 향해 러브콜

프리에이전트 시장에 나온 클레이튼 커쇼(33)를 향해 확실하게 러브콜을 보냈다.

지난 23일 ‘OSEN’에 따르면 텍사스 레인저스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은 이날 ‘MLB네트워크’ 방송에 출연해 “커쇼와 연락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텍사스로 돌아오고 싶다면 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텍사스 감독을 맡고 있는 우드워드 감독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다저스의 3루 코치로 재직하면서 커쇼와 인연을 쌓은 바 있다.

커쇼는 올해 처음으로 프리에이전트 자격을 얻었다. 2008년 빅리그 데뷔한 커쇼는 다저스에서만 14년을 뛰며 185승84패 평균자책점 2.49 탈삼진 2,670개를 기록했다. 사이영상 3회, MVP 1회, 올스타 8회, 평균자책점 1위 5회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오랜 인연이 끝날 위기다. 올해 커쇼는 팔꿈



▲ 클레이튼 커쇼, 사진=mil.com

치 부상을 당하면서 정규시즌 막판, 그리고 포스트시즌을 건너뛰었다. 예전과 같은 위력적인 구위가 사라졌고 몸 상태에도 의문이 생겼다. 다저스는 커쇼에게 웰리파잉 오퍼를 제안하지 않았다. 다저스는 커쇼와 재계약에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커쇼의 고향팀인 텍사스가 유력한 행선지로 떠올랐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어

난 커쇼는 텍사스주 노스댈러스 교외 유나버시티파크의 하이랜드파크 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오프시즌에도 고향인 텍사스에서 거주하곤 했다.

올해 팀 평균자책점 4.79로 아메리칸리그 15개 구단 중 13위에 그친 텍사스 입장에서는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줄 커쇼 같은 베테랑 선수가 필요하다.

결정은 커쇼의 몫이다. 커쇼가 고향팀이 내민 손을 잡을지 주목된다.

돈으로 톱스타 잡기 나선 PGA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가 ‘돈잔치’를 벌인다.

지난 2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골프워크’는 전날 PGA 투어가 내년 플레이오프 보너스 총상금을 현 6,0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1,500만 달러 증액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머니’가 자금원으로 알려진 ‘슈퍼골프리그’(SGL)와 영국 기반의 ‘프리미어골프리그’(PGL) 등 경쟁 리그 출범을 앞두고 인기 선수들 다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PGA 투어는 시즌이 끝나는 8월, 시즌 성적 상위 125명을 대상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이번에 PGA 투어가 증액하기로 한 상금은 이 플레이오프 상금을 말한다. 125명이 참여하는 플레이오프는 1차 대회인 노던 트러스트에서 100명을 추리고, 2차 BMW 챔피언십에서 70명, 최종전인 3차 투어 챔피언

십을 거치면 30명만 남게 된다. 30명은 마지막 페덱스컵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데, 최종전 우승자는 1,500만 달러를 독식한다.

PGA 투어는 최종 우승자 상금도 1,500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성적 외에 인기 순으로 지급하는 ‘선수 영향력 보너스’ 총액은 기존 4,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늘렸다. PGA 투어 대회 15개를 출전하기만 해도 5만 달러를 지급하는 ‘경기 출전 보너스’도 신설했다.

PGA 투어가 상금을 올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내년 9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PGL과 그렉 노먼(호주)이 아시아골프투어 커미셔너로 합류한 SGL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두 리그 모두 PGA 투어보다 많은 상금을 앞세워 소수의 인기 선수들 중심으로 리그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NBA 데뷔 후 두 번째 퇴장



勒布朗·詹姆斯
가 경기 도
중 상대 선수
얼굴을 팔꿈
치로 가격해
퇴장 당했다.

▲ 르布朗 제임스가 경기 중 상대 선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퇴장당했다.
사진=koa.com

2022 미국프로농구(NBA) 정규리그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와 원정 경기에 나섰다. 제임스의 퇴장은 3쿼터 종료 9분 18초를 남기고 디트로이트가 79-67로 앞선 상황에서 디트로이트의 제리미 그랜트가 자유투를 던지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리바운드 다툼을 하던 제임스와 스튜어트는 이 과정에서 제임스의 팔꿈치가 스튜어트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스튜어트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져 출혈이 생겼고, 화를 참지 못한 스튜어트는 주위 만류에도 계속 제임스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다.

결국 제임스와 스튜어트는 모두 퇴장당했다. 제임스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스튜어트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것이 플래그런트 파울 2에 해당해 퇴장 당했다.

제임스가 2003년 NBA 데뷔 후 경기 중 거친 반칙으로 인해 퇴장당한 것은 2017년 11월 마이애미 히트와 경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경기는 4쿼터 역전에 성공한 LA 레이커스의 121-116 승리로 끝났다.

제임스는 퇴장 전까지 10점, 5어시스트를 기록해 정규리그 1천48경기 연속 10점 이상 득점 기록은 이어갔다. 이날 현재 정규리그 1천 경기 이상 연속으로 10점 이상 넣은 선수는 제임스가 유일하다. 제임스 다음으로는 마이클 조던의 866 경기 연속이다.

★ 싸인 플러스 ★

간판

LASER ENGRAVING

SIGNPLUS

★ TROPHY & ENGRAVING

FAX: (562) 809-3878

SIGNPLUS123@YAHOO.COM

명찰 \$5.50

1"X3" W/PIN
+TAX
W/ THIS COUPON

★ OPEN MON-SAT ★
17615 PIONEER BL., ARTESIA, CA 90701

★ 싸인 플러스 ★

트로피

세리토스점

SAME DAY SERVICE AVAILABLE

★ OPEN MON-SAT ★
17615 PIONEER BL., ARTESIA, CA 90701